RaonAtti

11월

라온라온~이리날아오너라

MADE by 뿌마띠

뿌마뿌마

11월에는..

1. 일정

2. YD

3.CD

4.중간평가

5.문화

6.생활

7.아띠들의 생각

8.한달총평/feedback

9.이달의 아이디어/다음달 계획

10. 이달의말말말

1.전체일정

Nov. 11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CD						Svery prey방문-씨 뿌리기 korean class	프놈펜 - 국립박물관 센트럴 마켓
	3	4	5	6	7	8	9
YD	주간회의	ngo탐방 엄삐프놈 놀러감	yd팀미팅 한국어 수업 handicraft	ydp영어수업 쿠킹클래스 재료사러감 한국어 수업	ydp영어 한국어 수업 handi수업	ydp영어 쿠킹클래스	캄보디아휴일 독립기념일
	10	11	12	13	14	15	16
CD	주간회의	Green house 짓기-Training 영어 수업 한국어 수업	그린하우스 기초공사 영어 수업 한국어 수업	따께오 농업 컨퍼런스	따께오 농업 컨퍼런스	그린 하우스 짓기 Cd영어 한국어 교실	물축제
	17	18	19	20	21	22	23
YD	물축제 주간회의	물축제	이사간 날 yd영어수업 대청소 한날	라간사님 오신날 프놈펜에 재료사러감 한국어 수업	yd IT반만 수업 handi 수업 한국어 수업	yd IT반만 수업 쿠킹클래스- 닭 볶음탕 동민님 오신 날	라간사님과 동민님과 캠프답사 층아엑, 왓프놈, 의미있는 식사
	24	25	26	27	28	29	30
CD	중간평가 피드백,준비 광욱,보람 병원	중간평가회 cd시작	cd- green house 짓기 마을 영어 수업 한국어 교실	cd- green house 짓기 마을 영어 수업 한국어 교실	cd- green house 짓기 마을 영어 수업 한국어 교실	cd- green house 짓기 마을 영어 수업 한국어 교실	

2.YD활동

한국어 수업

매일 오후 5시~6시에 Youth 센터 학생들과 마을 아이들에게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였다.
11월 들어서 Youth 센터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실습을 가거나 일자리를 구해 센터를 떠나는 경우가 잦아졌다. 결국 Youth반 수업에는 Youth 센터 학생 2명, 마을 아저씨 1명,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운 학생 1명 총 4명만 수업을 하게 되었다. 다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해서 4명이라도 수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한국어를 공부한 학생이 설명을 도와줘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마을 아이들 수업은 어린 아이들이니 만큼 한국어 자체를 잘 습득하는 것 만에 목표를 두지 않고 관계를 맺기 위한 활동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러한 생각으로 아띠들은 한국 동요를 간단한 율동과 함께 가르치고 있다. 아이들이 노래와 율동을 배우는 것을 좋아해서 매일매일 즐겁게 수업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 수업이 끝나고 매일 아이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마을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었으나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아이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지 못하고 있다.

영어 수업

까리따스에서 아띠들이 Youth 센터 학생들에게 영어수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행정반, 회계반, IT반 학생들에게 영어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본적인 문법, 읽기, 일상생활에 자주 쓰이는 회화표현들을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다. 막상 영어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아띠들도 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저번 달에 고민했었던 학생들의 자율성문제, 실력편차가 너무 커서 수업을 진행할 때 어려움을 겪는 문제들 뿐만 아니라 다른 고민들도 생겼다. 학생들이 격주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의 스케줄을 혼동하는 문제,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수가 점점 적어지는 문제 등... 그리고 무엇보다 센터에 영어수업이 있는데도 아띠들이 영어수업을 별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었다. CD와 YD주로 나눠지면서 격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 수업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고 있고, 이렇게 띄엄띄엄 수업을 하다 보니 Youth 센터 학생들에게 아띠들의 수업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다.

핸디크래프트

핸디크래프트 수업을 여러 번 하면서 이 곳 학생들이 핸디크래프트에 관심이 정말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수업 때 여러 종류의 끈을 이용해 리본을 만들고, 글루건으로 머리띠나 머리끈에 붙여서 예쁘게 꾸미기도 하였다. 핸디크래프트는 수업만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기회였던 것 같다. 매번 수업 때마다 많은 학생들이 찾아왔고,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이야기들도 함께 하면서 웃고 떠들며 많은 학생들과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리본 뿐만 아니라 필통이나 열쇠고리 등 다른 것들도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한다.

한국 요리 수업

매번 한국어 수업에 오지 않는 많은 학생들과 마을 아이들도 한국 요리 수업에는 많이 찾아오고 있다. 먹을거라서 그런가?? 어디서든 다들 먹을 것에는 관심이 많은 것 같다. ^^ 이번 달 한국 요리 수업에서는 떡볶이와 닭 볶음탕을 함께 만들어 보았다. 역시나 떡볶이와 닭 볶음탕도 다들 정말 맛있게 먹었다. 요리 수업이 끝나고도 레시피를 다시 알려달라고 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이렇게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내심 한국 음식에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다. 또한 아띠들은 학생들과 아이들에게 한국음식을 소개해 주고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어 보고 싶어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현지에서 구하기 쉽고 비싸지 않은 재료들로 요리수업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PSE School 방문

PSE는 “Pour un Sourire d’Enfant”의 약어다. 1995년에 프놈펜 빈민가 쓰레기더미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프랑스 Christian들이 만들었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다. 현재 PSE에는 6000명 이상의 아이들과 학생들이 있으며, PSE는 아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육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위생, 영양, healthcare, 문화, 스포츠, Re-housing 등 아이들을 위한 많은 Program들을 하고 있다.

아띠들은 까리따스 학생, 스탭들과 PSE School을 방문하여 교육과 직업훈련 Program,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고 기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을 듣고 학교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PSE는 여러 기업들의 후원, 기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업훈련 Program같은 경우에는 각종 기술과 더불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태국어 등 여러 외국어를 함께 배우고 있으며, 여러 호텔, 기업들과 연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까리따스 학생들 뿐만 아니라 아띠에게도 PSE School 방문은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3.CD활동

Takeo 농가 견학

11월 13 ~ 14일, 2일간 아띠들은 깐달 지역 VDA들과 함께 Takeo 지역에 마우 아저씨 농가를 방문하여 농법을 보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아띠들이 활동하는 마을 VDA 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 VDA들도 함께 갔기 때문에, 처음엔 어색하였지만 모든 분들께서 외국 학생들과 함께 간다는 것에 즐거워 하셨고, 특히 딸이 한국인과 결혼했다는 아주머니께서 아띠들을 잘 챙겨주셨다.

마우 아저씨는 CEDAC이라는 현지 농업분야 단체와 함께 선진농업기술을 도입하여 발전시켜왔으며, 현지 TV에도 출연하고, YOUTUBE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정도로 캄보디아에서 유명한 농부였다. 특히, 아띠들은 이 곳에서 CCA(Climate ChangeAdaptation, 기후변화적응)와 관련한 농업기술들을 보고 들으면서, 한국에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CCA라는 개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캄보디아에서 어떻게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해나가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Takeo 농가 견학

이 곳에서는 모든 식물들을 재배할 때, 화학적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 비료를 사용하는 친환경적 농법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띠들은 유기농 비료를 어떻게 만드는지, 벼를 재배할 때 물고기를 같이 길러서 해충피해를 줄이는 방법 등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캄보디아에서 연구하고 계시는 한국인 농학박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서, 쌀의 수분을 측정하여 쌀의 수확시기를 판단하는 것도 지켜볼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활동이 크마에로 진행되었고, 영어로 설명해주는 스텝도 전문적인 부분은 설명해주기 어려웠기 때문에, 아띠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아띠들보다 Youth 센터 CD반 학생들이 왔었더라면 더욱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해는 정확하게 하지 못했더라도, 이 곳 어른들과 함께 1박 2일간 함께 지내며 웃고 즐기면서 외국 학생들이 아닌, 이 곳에 손자, 손녀, 조카 혹은 동생이 될 수 있었기에 충분히 값진 시간이었다.

그린하우스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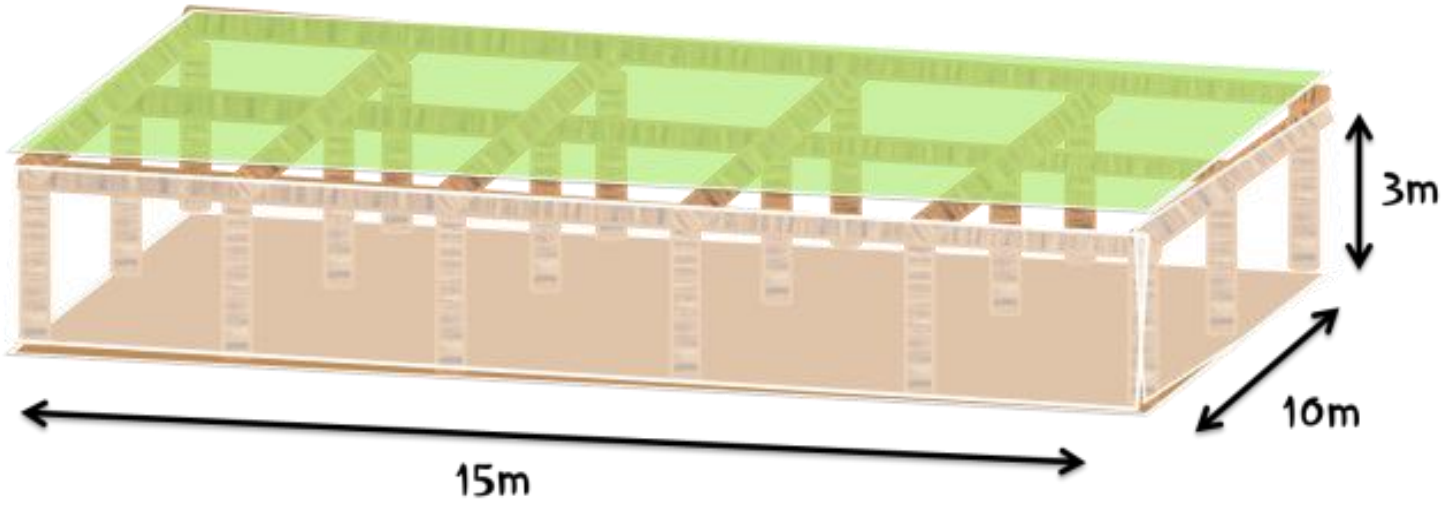
11월 CD 주에는 Mr. 사브은(이하 브은형) 집에서 그린하우스를 건축하는 활동을 같이 하였다.
그린하우스를 건축하기 전, CD 스텝에게서 그린하우스 건축은 아띠들의 지역개발 사업비로 진행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아띠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이 되었다. 브은형은 10월 부터 아띠들이 관계를 맺고 활동을 하고 있는 Svay Prey 마을의 Key farmer로써, 10월에는 드러꾼 농사를 같이 지었다.
그린하우스를 건축하고 그 안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었다. 먼저, 그린하우스 건축은 기후변화적응(CCA)의 일부분이었는데, 하우스 내부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서 기후로 인한 작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우기에 폭우가 쏟아져도 천을 통하여서 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굵은 물방울로 인한 작물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건기에 많은 일사량을 막아주기 때문에 하우스 안에서는 작물이 알맞게 자라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들을 막아주며, 퇴비를 그린하우스 안에 보관할 수 있어서 위생적으로도 더욱 좋다고 하였다.

그린하우스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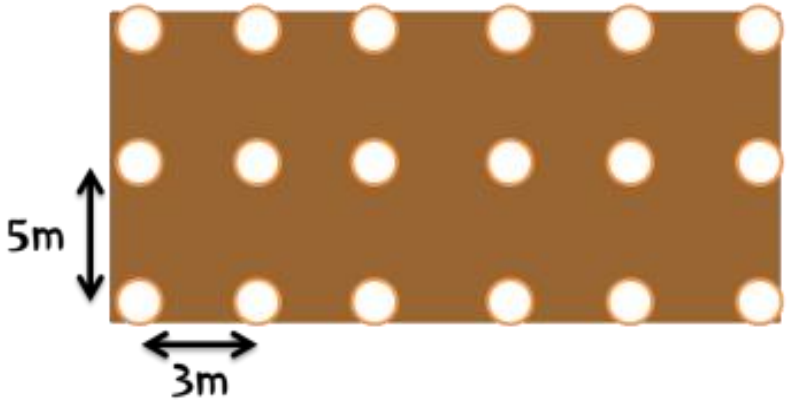
그린하우스를 건축하는 활동에서도 언어는 큰 장벽이었다. 처음에 아띠들은 그린하우스를 어떤 식으로 지을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지 못하여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상태로 우왕좌왕 했다.
그래서 아띠들은 공구 단어들과 기본적인 크마에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였지만, 현장에서는 단어도 다르고 발음도 달라서 작업하기 어려웠다. 오히려 아띠들 보다는 브은형의 큰아들 김홍과 작은아들 김하가 더욱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방해만 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었다.
하지만, 브은형께서 하나하나 직접 보여주면서 아띠들이 할 수 있는 작업들을 설명해주었고, 아띠들도 작업이 익숙해지면서 수동적인 모습보다는 능동적으로 작업에 참여 할 수 있었다. 전체 건축 기간이었던 약 2주라는 시간 동안 엉성하지만 열심히 같이 작업하여서 그린하우스를 완성하였다. 함께 흘린 땀만큼 이 곳에 좋은 영양분이 되어서 질 좋은 작물들이 많이 재배 되어 브은형 가족의 생계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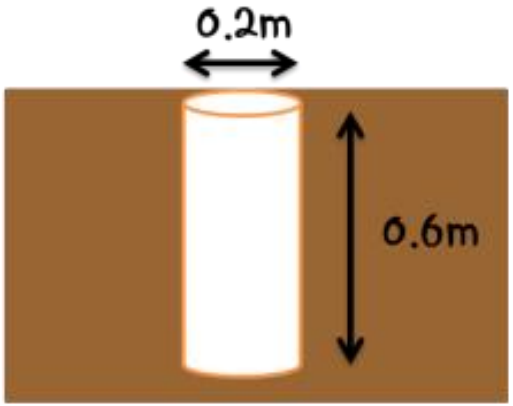
그린하우스 건축

How to build the sh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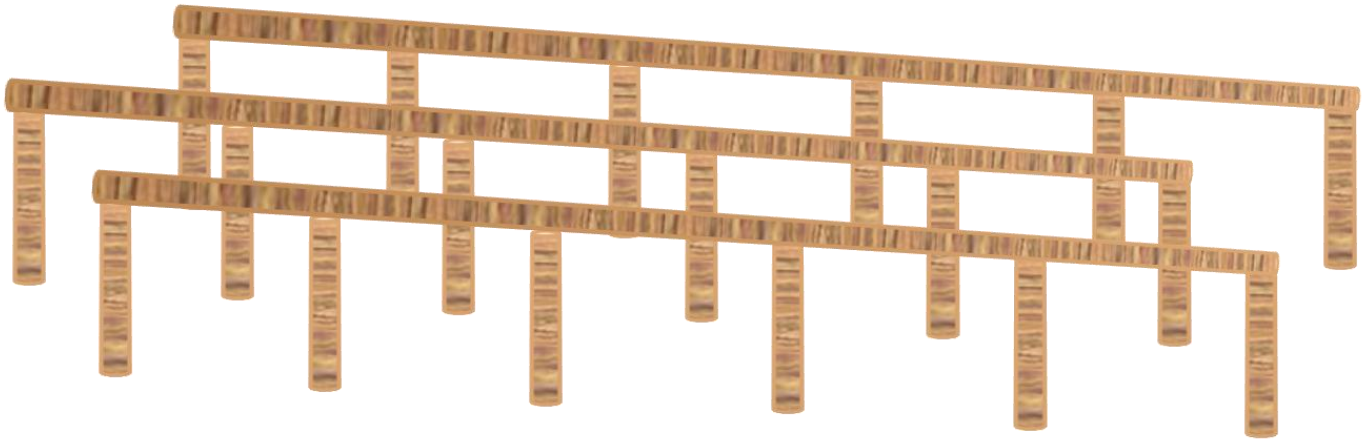
1. Make the hole for standing pill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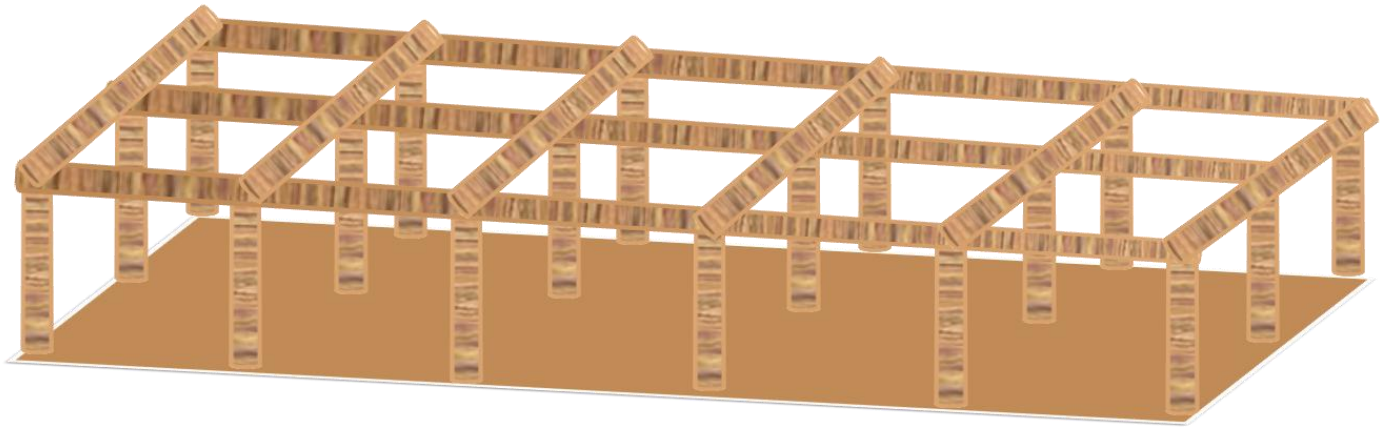


그린하우스 건축

2. Make the pill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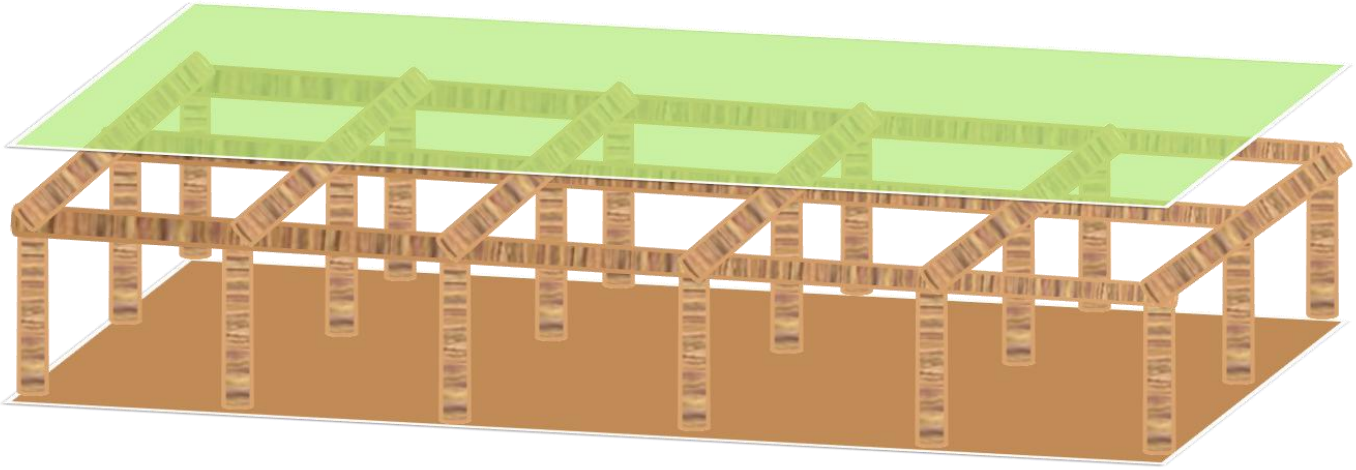


3. Put the pillar into the ho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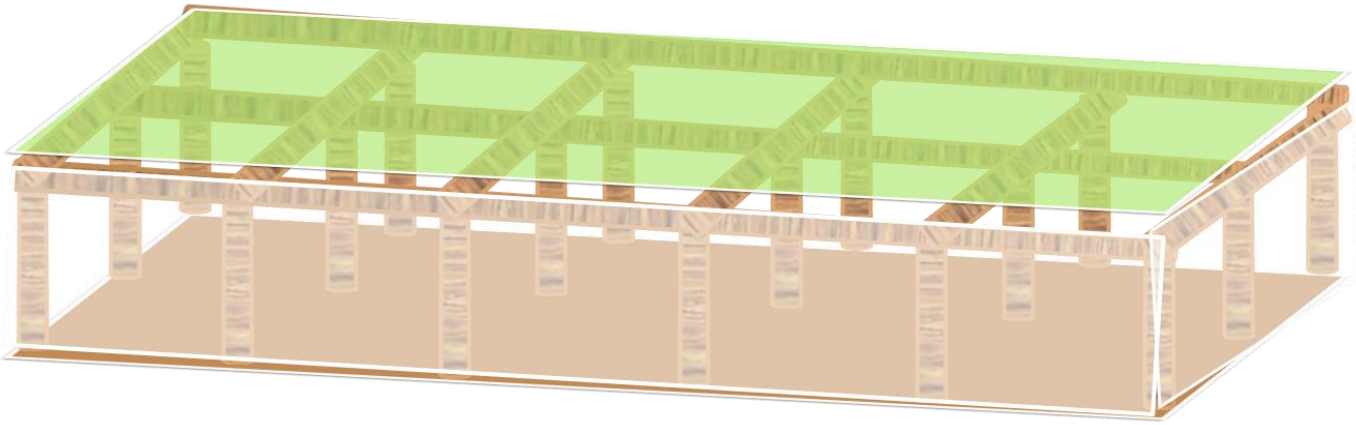


그린하우스 건축

4. Put the blanket on the pillar



5. Put the blanket around the pillar



CD 영어수업

10월 달에 이어서 마을에서 영어수업을 계속 진행하였다. 11월에는 CD 주간에 다른 일정들이 많아서 수업을 많이 진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업이 있는 날이어도 아이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아띠들이 미리 아이들에게 수업일정 변경에 대해 미리 알려주지 못하여서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알파벳 반에서는 고학년 학생들의 참여율은 떨어지고 어린 아이들의 참여율이 점점 늘어나 평균연령이 낮아졌다. 따라서 알파벳을 계속하여서 복습하였지만 아이들이 잘 따라오지 못하였다.
문장을 통하여 공부하는 반은 여전히 1명의 학생과 수업을 진행하였지만 잘 따라와 주었다. 하지만, 가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크마에로 잘 설명해주지 못하여서 크마에로 더욱 꼼꼼히 수업을 준비해야겠다는 것을 느꼈다.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낮아짐에 따라 영어수업보다는 놀이방의 느낌으로 보낸 한 달이었지만, 아이들이 영어에 대해 흥미를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낸 한 달이었다. 10월부터 고민했던 지속적인 수업에 대해서 스텝들에게 함께 고민하길 요청하였고 대안을 같이 찾고 있는 중이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찾아보고 있다.

4.중간, 되돌아봄

드디어 우리팀도 아띠의 꽃이라 불리는 중간평가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의 중간평가를 위해 20일에 수원y의 남신 라영석 간사님께서 먼저 현지에 오시게 되었고, 22일에는 연맹의 원빈 정동민 간사님께서 오셨다. 라간사님께서는 아띠의 일을 함께 도와주셨고, 마치 세달 전부터 있던 분처럼 함께 하였다. 보고회는 먼저 카리타스 측에서 아띠와 함께 했던 사업과 일에 대한 개요와 지금까지의 발자취에 대해 간략한 발표를 해 주셨고, 이어서 아띠들의 수원에서의 훈련과정과 이 곳에서 함께 만들어간 일들에 대해 발표를 했다. 발표가 끝나고 카리타스와 아띠들간의 피드백을 주고 받았고, 그런 과정에서 아띠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간사님들과의 이야기 시간, 중간평가를 마치면서 팀원들 각자의 재충전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뜻 깊었다.

5.문화,그 즐거움

11월 2일 뿌마띠의 일기 날씨 :맑음

프놈펜 나들이-프싸 트마이, 국립박물관

주말을 맞이하여 프놈펜 나들이를 떠났다. 지난달은 역사탐방이었다면, 이번 달은 문화체험을 위주로 프놈펜 이곳 저곳을 돌아다녔다. 그 중 센트럴마켓과 국립박물관을 소개하고자 한다.

프싸 트마이(센트럴 마켓) : 1937년 프랑스 식민지 시절 지어진 건물로, 식료품과 꽃 , 과일, 보석 등을 팔며 캄보디아의 동대문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프싸(시장) 트마이(새것)으로 신시장이라는 뜻이며, 지난 2011년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리모델링 되어 돔형의 내부가 매우 아름답다.

국립박물관 : 프놈펜 왕궁 뒤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고대 크메르 제국 미술품을 소장하고 잇다. 붉은 갈색의 크메르 전통건축양식으로 지어졌으며, 폴폿 정권시절에 그대로 방치되어 많이 훼손된 상태이다. 'ㅁ' 모양 박물관에 다양한 전시품이 있으며, 가운데에는 예쁜 정원이 조성되어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 박물관에 가기 전 조금 더 공부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날이었다. 다음부턴 공부 열심히 하고 가기로 약속!!

11월 9일 뿌마띠의 일기 날씨 :역시맑음

캄보디아 독립기념일(윗미은아잇끄리읏)

1953년 11월 9일은 캄보디아가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한 날로서 올해는 6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였다. 매해 독립기념일에는 독립기념탑 앞에서 국왕과 정부 관료 들이 관중이 보는 앞에서 거대한 횃불을 탑 안에 놓는 행사가 진행된다. 독립기념탑은 크메르 스타일의 사원과 유적지에서 볼 수 있는 연꽃 모양 사리탑을 본 뜬 모양이며, 5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밤마다 불이 켜지는 야경이 매우 아름답다. 올해는 왕궁을 예쁜 전등으로 장식하고 불꽃축제를 하였다. 아띠들은 기숙사 귀가 시간 때문에 그 광경을 보지는 못했지만, 저녁시간에 지나가며 보았던 야경은 항상 잊을 수가 없다.

11월 16~18일 뿌마띠의 일기 날씨 :여전히맑음

캄보디아 물축제 Bon Om Duk

캄보디아의 물 축제인 본옴뚝은 배(뚝)로 노를 젓는(옴) 명절(본)이라는 뜻으로, 메콩강과 똔레삽강이 합쳐지는 프놈펜 강변에서 열린다. 우기에서 건기로 바뀌면서 강물의 흐름이 바뀌는데, 이 순간 물의 흐름이 정지 한다. 베트남과의 수중전쟁에서 이긴 것을 기념하여 카누경기를 하는데, 캄보디아의 각 지역사람들이 이 경기를 보기 위해 프놈펜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장관을 이룬다고 한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2010년엔 압사사고가 일어났고, 2011년에는 홍수복구, 2012년에는 노로돔 시아누크 전 국왕 서거 애도기간, 그리고 올해는 홍수피해로 인해 3년째 취소되는 바람에 기대했던 물축제를 보지 못해 매우 아쉬웠다. 본옴뚝 기간에는 코코넛과 바나나 그리고 쌀을 먹으면서
보름달에 소원을 비는 것이 전통인데, 아띠들도 바나나를
먹으면서 다들 소원을 비는 시간을 가졌다.

보람(여신)단원 생일

생일축하해줘서
어꾼!!!!!

지난 11월 10일에는 보람단원의 생일을 맞아 유스센터 친구들과 함께 생일파티를 했다. 마음만은 진짜 미역국을 끓여주고 싶었던 팀원들이었지만 결국 인스턴트 미역국으로나마 생일기분을 살렸다.보람단원의 생일이라서 그런진 몰라도 저녁메뉴도 맛있었다는 소문이~! 팀원들이 몰래 케이크와 선물을 준비했는데, 직접 케이크를 사온 보람단원 덕에 :> 2개의 케이크로 넉넉하게 나눠먹었다. 아띠팀원과 유스친구들이 함께하여 더욱 재미있는 파티였다! 보람아 생일축하해!!!

본옴뚝

보람단원과 은지단원이
우걱우걱 먹었다는
귀뚤귀뚤...

여신 보람이와
찡쩍 한마리~

6.생활, 그 삶 가운데

새로운 보금자리

11월 19일 날 아띠들은 새로운 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사 오자마자 센터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 함께 청소를 해주셨고, 그 분들이 돌아간 뒤에도 팀원들 모두 하루 종일 청소를 해서 말끔한 집에 들어올 수 있었다. 처음에 캄보디아에 왔을 때는 센터 기숙사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만의 집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보금자리가 생겼고, 이번 기회에 라온아띠만의 생활문화를 만들어 이웃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잘 지내고 싶다.

고통의 시간들

이번 달에는 광욱단원과 보람단원이 원인 모를 복통과 두통으로 시달렸던 달이었다.
중간평가가 시작되기 전날 갑자기 고열과, 요통, 복통으로 광욱 단원은 병원으로 실려갔고,
보람단원도 중간평가 전날부터 증상이 시작 되어 앓다가 이틀 뒤에 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병원에서 내려준 진단은 두 단원 모두 '장티푸스'였고, 팀원들 모두 각자의 건강에 유의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준 사건이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있었던 일이라서 기숙사에서 아팠을 때와는 사뭇다른 느낌이었다. 지금은 두 단원 모두 약을 먹고 잘 쉬어서 건강이 호전된 상태이다.새로운 곳에 정착한 만큼 더 열심히 운동하고 더 열심히 먹어서 더 이상 아무도 아픈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면역력의 생존자는 신데렐라 김모단원이라는 후문이....

간사님들과의 의미 있는 식사

중간평가 다음날 전국y 청소년부 간사님들께서 평화감수성을 위한 배움 여행을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카리타스에도 방문하셨다. 간사님들의 일정상 우리와의 식사시간이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맛있는 식사를 사주셨다. 함께 가게 된 식당은 '로터스 블랑'이라는 곳인데 이 곳은 앞에서 소개한 PSE에서 운영하는 곳이고, 레스토랑에서 학생들이 배운 것을 직접 실습을 하고 있었다. 간사님들과 의미 있는 곳에서 의미 있는 식사를 하게 되어서 즐거웠고, 우리를 위해 시간 내주신 간사님들께 감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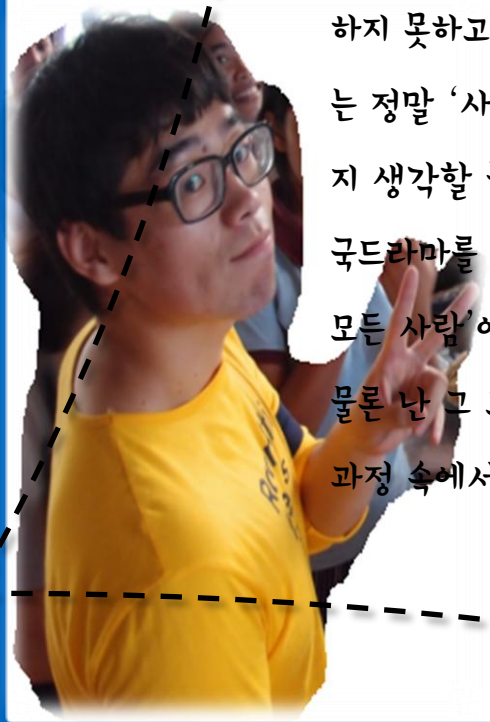
에이~ 간사님,
한턱쏘세요!
여신 보람이와
물방개 한마리
드실래요~
Welcome
Mr LA
Welcome
Mr LA

7.아띠들의 생각

욱

10월의 고민거리가 소통에 임하는 나의 '자세'였다면, 11월의 고민거리는 '자세'에 대한 나의 '반성'이다. 아띠 활동의 반을 보내면서, 나는 내 자신을 전혀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고집, 나의 생각.. 어찌 보면 난 정말 이기적이게도 나만 생각하고 있었었다. 나만 알고, 너에 대해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조차 신경 쓰지 않았던 이기적인 모습이 아띠 활동을 중간 정도 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난 우습게도 출국 전 캠프 때 미리 예상하고 있었었다. '때로는 너가 생각하는 것들이 실행되지 않고, 너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팀원들과 싸우기도 할거야.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한 발자국 뒤에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게 물러설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아는 너가 되었으면 한다.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 사람들에게 배우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보도록 노력하는 삶, 라온아띠라는 말처럼 좋은 친구가 되길 노력하는 삶,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5개월 동안 잘 지내길 바랄게!' 이 글은 출국 전 캠프 때 내가 나한테 썼던 편지였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왔는지 물어본다면..? 대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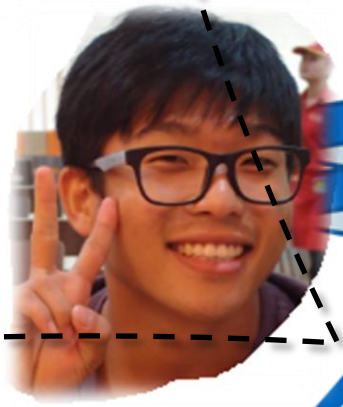
욱



개인 면담 때 나는 '이 곳에 한국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 온 것이다'라고 말했었다. 이 문장만 보고 생각한다면 나는 정말 잘 살고 있었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었다.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따졌었다. 마치 나 혼자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상대방도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무례하게 굴기도 하였다. 정말 바보같이 나만 잘난 줄 알았었나 보다.. 그래서 나는 정말 '사람'이 되고자 한다. 나만 생각하고 숨만 쉬고 있던 이기적인 동물이 아니라, 타인까지 생각할 줄 알고 또한 혼자서는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말이다. 최근에 본 한 국드라마를 인용해서 내 식대로 적용해보자면 좋은 사람이란 '어떤 게 좋은 사람일까 고민하는 모든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고민하고자 한다. 사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좋은 사람이란 무엇인지.. 물론 난 그 고민 속에서 수 많은 자기반성과 좌절을 하겠지만 그래도 계속 고민 할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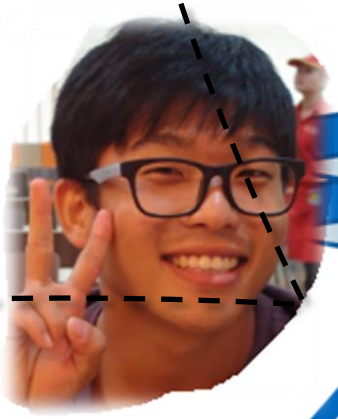
썽

벌써 캄보디아에 온지 석달 남짓..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것들을 팀원, 현지스탭, 센터 아이들과 해온 것 같다. 한국에 있을 때는 5달이라는 시간이 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와서 지내보니 정말 총알처럼 지나가는 것 같다. 석달동안 정말 100m 달리기를 하듯이 정말 바쁘게 달려온 것 같다. 옆에서 달려가는 팀원들을 따라가기도 너무 벅찼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처음엔 먹는 것도 정말 많이 먹고, 이런저런 활동들을 나의 열정보다 더 열심히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밥맛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처음에 열심히 하려고 했던 열정도 점점 식어가는 것 같다. 중간평가때 출국전 캠프에서 내가 나 자신에게 적었던 편지를 받아서 읽어보았다. 내가 왜 라온아띠에 지원을 했는가, 캄보디아에 오기 전에 여기서 무엇을 보고 배우고 싶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았다. 중간평가를 하고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다시 불씨가 살아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다. 빨리 열정의 불씨를 되살려야겠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썽

석달동안 '관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팀원들 간의 관계에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다. 중간평가 전에 간사님과 이야기를 할 때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쉬운 것이 사람과의 관계이다.' 이 말을 듣고 나서도 여전히 나는 관계 맺기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같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 물론 5명 서로가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고 있지만 아직 너무 멀게 느껴진다. 뭔가 외부의 일들, 다른 곳들 여행하는 것들 모두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지만.. 먼저 팀원들간에 서로에 대한 이야기, 서로의 고민들, 관계에 대한 고민들을 나눠보는 시간 또한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두달 쪼~끔 더 남았다. 광욱, 유선, 은지, 보람 다들 소중한 친구 동생들.. 다들 힘내고 서로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레악스마이

11월 한달 동안 수도 없이 되새긴 말은 “감사하자”였다. 익숙해지고 지친 환경에서 불평만 늘어나던 나에게 가장 어려웠던 과제였다. 아띠에 지원했을 초기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 다짐을 하고 나서부터 “그래도~잖아.”하면서 앞으로의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감사하자”라는 말을통해서그동안 안 보이 던게 보이기 시작했다. 나를 ‘인식’시키기에만 급급하던 인사하기가 아니라 ‘관계’를 맺기 위한 인사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니 동네와 이웃이 보이기 시작했고, 강과 바람의 여유가 느껴졌다.

사실 이번 달에 있었던 중간평가는 나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중간평가를 정말이지 기다렸고 기대했었다. 직전 점검을 할 때가 되어서야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 그 순간 스스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힘들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깊은 고민보다 잘하고 싶은 욕심이 앞섰던 것 같다. 무사히 중간평가는 마쳤지만, 아직도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질문과 고민을 해야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다.

레악스마이

아침마다 강변을 걸으면서 이제서야 진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게 실감이 났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보는 이 풍경,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추억 모두 떠날 땐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갑자기 어떻게 해야할지 어떤 생각도 들지 않았다. 하지만 고민 끝에 든 생각은 이건 지금 할 고민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그냥 지금에 집중해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살려고 한다 하하하하하

아띠 합격 후 지금까지 오개월을 함께 한 팀원들과 고운정, 미운정 모두 있지만, 좋아도 우리팀 미워도 우리팀이란 것을 잊지 않아야겠다. 무엇보다 내가 지금 여기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가장 큰 이유가 '함께'이기 때문이 아닐까.

남은 두달! 잘~ 살다 가자!! 은지, 보람이, 광욱오빠, 의성오빠 항상 고맙고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아띠 10기 모두 다 건강하고 즐겁게 살다가 보자!

쓰라이누

중간 평가를 위해 간사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벌써 반이나 왔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레 더 느꼈고, 중간 평가회를 할 때는 마치 이 보고회를 마치고 강제로 누가 날 떠밀어서 집에 가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문 득 그런 생각을 하던 도중 들었던 생각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캄보디아를 떠나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렇게 가면 안돼!!!'라는 소름끼치는 생각이었다. 모든 일,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측면, 팀원들간의 소통, 일적인 부분, 감정적 측면 등에서 조금 더 마음과 힘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이 아쉬울 것 같았다. 물론 나에게는 많은 상황들과 장벽들.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었다. 하지만 이젠 그 장벽들을 넘어서 미친듯이 일하고, 미친듯이 놀고, 미친듯이 사람들과 즐겁게 소통하고 싶다. 나는 그냥 이 곳에 미치고 싶다. 한마디로 모든 것에 더 많은 관심과 최선을 보이고 싶다. 관심이 있어야 무언가를 할 수 있듯이 나는 많은 관심과 최선의 행동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남은 기간 내내 평정심을 유지하며 최선을 다하고 후회가 남지 않도록 내 자신과 내가 속한 모든 곳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찌

벌써 세 달이 지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중간평가날짜가 잡히니 '중간'을 훌쩍 지났다는 것이 실감이 났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가장 많이 한 생각은 나는 이곳에서 '누구'냐는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이 곳의 친구들과 사람들을 정말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하면서도 센터나 마을에서 활동을 할 때는 스스로 '국제 자원활동'이라는 개념적 틀에 제한을 받았던 것 같다. 국제개발과 국제 자원활동이란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만큼, 마을의 어떠한 문제를 볼 때 수업시간에 배웠던 개념과는 어떻게 연결 되는지 먼저 생각하려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중간이 지나 되돌아 보니 조금씩 다르게도 볼 줄 알게 되가는 것 같다. '라온아띠'라는 한국인 자원활동자들이 위생과 건강문제를 위해 손 씻기 교육을 하는 것과 '우리 은지 언니', '내 친구 은지'가 날 걱정해서 손씻기 교육을 하는 것은 분명 다르기 때문이다. 가진 마음이 친구라면, 다가가는 방식과 실질적 활동도 좀 더 그냥 친구여도 되는데 왜 스스로 제한을 두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활동에 있어서는 팀으로 활동하니 만큼 고민 해야 할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 늘 더 지혜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이후로 보이는 것이, 느끼는 것이 더 많아 졌다. 그래서 요즘은 남은 2달의 소중한 시간을 흘려 보내지 않기 위해 이른아침시간, 점심 낮잠시간을 이용해 열심히 마을을 만나고 있다. 나에게는 이론을 이해하고 적용해 이곳을 파악하기 보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제대로 배우고 날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훌륭한 자원활동가는 되지 못하더라도 이미 나에게 친구로 함께 해주는 캄보디아의 진짜 '라온아띠'들에게 나도 '우리 은지 언니', '내 친구 은지'이고 싶다.

8.뿌마띠, 포토갤러리

friends
of
Asia

RaonAfri
friends
of
Asia

Caritas
CAMBODIA

8.한달총평/feedback

한달총평

일)
이번 달은 본격적으로 다섯 명의 아띠들이 함께 YD와 CD일을 했던 기간이었다. YD와 CD일에 1주일씩 격주로 들어가다 보니 어느 한쪽 일에도 깊게 들어가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다 보니 마을에서 활동을 하지만 정작 마을에 대해 모르는 점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을 느낀 아띠들은 주어진 활동을 하는 것에 급급했고 보다 충분히 창의적으로 신나게 할 수 있는 것들도 능동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 같다.

생활)
유스 친구들과 함께 지내던 기숙사를 떠나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고 새로운 마을과 새로운 이웃들이 생겼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밥을 해주시는 어머니가 계시던 기숙사의 생활과는 달리 아띠들 스스로 장을 보고 음식을 해먹게 되었다는 것이다.

관계)
갑작스러운 이사로 인해 유스센터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아쉬움이 남았다. 또한 중간을지나 스텝들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니 아띠들 스스로를 되돌아보기 보다 스텝들을 먼저 판단하려 했던 모습을 반성했다. 그리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 남자 팀원들과 여자 팀원들이 한 집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마을에서의 관계들을 쌓기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한편, 정작 가장 가까운 아띠들 사이에서 소통이 부족한 같다는 의견도 있어서 아띠들 사이에서도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한 것 같다.

피드백

3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니 점점 지쳐가는 아띠들이 생겨나고 있다. 아띠들이 주로 하는 활동이 community development이다 보니 더운 날씨와 고된 농사일로 인해 아띠들의 체력 또한 많이 소진된 상태이다. 육체적인 소진 때문인지, 다른 부분인지는 아띠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정신적으로 소진된 아띠들도 있어 여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으로 수업과 여러 활동들에 대해 준비가 소홀해 지기도 했던 것 같다. 특히 유스반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빠져나가고 수업에 유동적으로 들어오다 보니 수업에 있어서 담당 아띠들의 생각에서도 서로 다른 부분이 생겨났다. 또한 아띠들에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인 스마트폰에 관한 부분에서도 고민이 생겼다. 와이파이가 되던 센터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오면서, 수업을 하기 위해 센터에 가있는 잠깐의 시간에 와이파이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아띠들은 스마트폰과 와이파이에 있어서는 비교적 자율성에 맡기기로 했었지만, 수업과 활동에 지장이 가기까지는 하지 않도록 했었는데 잘 지켜지지 못했던 것 같아서 이러한 문제에 두고 함께 고민 중이다.

9.이달의 아이디어/다음달 계획

이 달의 아이디어

- 분리수거 통을 아띠들의 집 앞에 설치하여 마을 주민들 또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자.
- 수업의 방향성을 수정하고 보다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해보도록 노력하려 하자.
-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마을과 살고있는 마을에 대한 조사를 하자.
- 센터 아이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하자.

다음달 계획

- 분리수거 통 설치
- RETREAT준비 및 참여
- 수업방향재설정
- 마을에 음식 돌리기
- 아띠들만의 더 깊은 소통시간
- 1월 ymca 청소년 캠프사전준비
- 벙깍호수에 대한 공부
- 오전부터 3시까지 CD활동을 하고 오후에 센터에서 한국어 수업
- 유스 졸업
- 세계인권의날 퍼레이드 참여

뿌마뿌마 말말말

쏨또~ 어꾼~
죄송합니다~고맙습니다~

크념 늑 네악
전 당신이 그리워요!

아니 어와이?
이게 뭐에요?

틀라이나~
쏨 적틀라이~
에이~비싸요~ 깍아주세요

크념 토앗토앗
저는 뚱뚱해요~

꺅! 12월도
너무기대되!